

2004 지방재정 세미나

환영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오늘 ‘지방재정학회’와 ‘지방재정공제회’ 공동주최로 「지역균형 3대 특별법 제정이 후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도 목포에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를 기획해주시고 우리 지역 개최에 협조해주신 이재은 재정학회 장님, 조기안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행정자치부 김주현 차관님과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각 시·도의 재정분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시대적인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이 과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적인 틀도 갖추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이의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기류에 힘입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우리 전남에서는 그 기대가 사뭇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분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이 상생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남은 오히려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자주세원이 크게 열악한 우리 전남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이런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어떻게 조정하여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결국 지역간 균형발전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서는 '개발지역 대 낙후지역'의 시각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세워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비수도권 지원을 산·학·관의 협력과 분담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다면 이들 낙후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대폭적인 추가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재정세미나에서 이같은 여망이 담긴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께서 자치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치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8일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